

학생 기초학력 향상 맞춤형 지원 강화

도교육청,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223교 운영... '초등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69교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18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에 따르면 이전에 운영했던 두드림학교와 느닷돌학교를 통합하여 올해부터는 맞춤형 학습지원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55교, 중학교 52교, 고등학교 16교 등 총 223교로, 1교당 300만~2,000만 원을 지원하며,

각 단위학교별 교원을 중심으로 기초학력협의체를 구성해 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수준 및 원인을 진단한 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초등 저학년 읽기·쓰기·셈하기 집중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기 위한 '초등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를 운영한다.

첫걸음지원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시간을 중

심으로 담임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수업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69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1교당 300만~2,500만 원을 지원받아 1대 1 맞춤형 학습 등 다양한 수업활동을 펼친다.

특히 부적응으로 인한 학습더딤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동화책 활용 수업, 수업 중 협력강사 지원, 방과후 기초학습 향상 지원

등 기초학력협의체 협의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기초학력 더딤학생들에게 다면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과 학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GM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협(GM)지부 조합원들이 27일 군산시청 정문 도로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협은 지난 13일 경영악화를 내세워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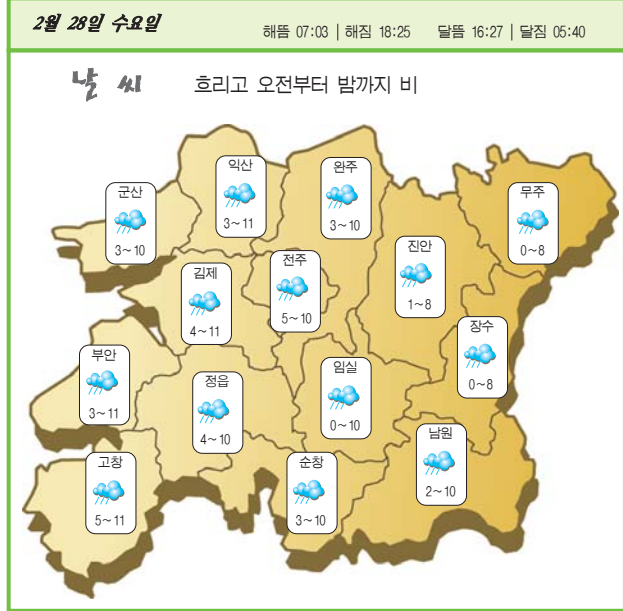
원광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9년 연속 재지정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9년 12월까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원광대는 2010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재지정 받아왔으며,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북 6개 시·군의 다문화 및 건강가정 관련 일반운영기관들과 협력해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중심대학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이민자가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 신청 시 단계별 가산점 부여,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국적 체류심사 기간 단축, 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종합평가 합격 시 면접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420개 초등 신입생에 책꾸러미 4억원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420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책꾸러미 4억원을 지원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 선물(책 꾸러미)을 통해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길러주기 위

해 420개 초등학교에 총 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는 신입생에게 1인당 2만5,000원을 들여 동화책 2~3권이 담긴 책꾸러미를 입학식 때 전달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야호 틈음활동단 양성 위탁 사업자 모집

전주시, 28일~3월 20일까지

전주시는 야호학교의 탐별 길잡이 교사인 틈음활동단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팀을 이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해 자기주도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될 틈음활동단을 양성, 역량 강화를 지원할 위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틈음활동단은 야호학교의 각 프로젝트별로 1~2명씩 배치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청소년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청소년들의 생각을 키워주고 활동 중 나타나는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게 세심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틈음활동단의 역량이 탐별 활동의 질과 성과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 틈음활동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틈음활동단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전문 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위탁 사업자는 올해 추진되는 틈음활동단의 활동을 매주 관찰, 필요한 역량을 분석해 매월 교육과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로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들을 찾고 자신만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면서 "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생각을 키워주고 미래를 여는데 도움을 줄 틈음활동단과 위탁 사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 시가 요구하는 교육 분야 관련 교육 능력과 교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접수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10~1)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종돈 개량 유전체 선발기술 국내 최초 실용화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개량률 증가로 166억 이익 기대

가축이나 곤충의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유전자 대량 발굴 및 신종종 개발, 항병성 고품질 가축 개량 등에 나서고 있는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화교)이 국내 최초로 유전체 선발기술을 현장에 적용, 실용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업단은 그간 종돈장에서 부모의 가계도에 의해 추정된 육종가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사용할 후보돈을 선발, 개량 효율성이 낮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분석, 정확한 육종가를 조기에 제시해 개량률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산자수(産子數·한번 분만 시 출산

하는 새끼 수)와 같은 번식형질은 자기 번식성이 아직 없는 어린 상태에서 부모의 육종가로 선발하면 정확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더욱 정확한 육종가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어 기존 분석방법으로 추정된 육종가로 선발하는 것보다 개량 효율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유전체에 따른 선발이 국내에 정착하면 아직 자기 번식 성적이 없는 어린 후보돈에 대한 효율적인 선발이 가능하며, 개량의 극대화 및 가속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GGP농장(금보, 대비, 선진) 3곳, 피그진코리아(주)와

함께 2015년부터 3년간 15억을 투자해 GGP농장이 보유한 종돈과 검정돈 10,000여두의 유전자를 수집한 후 유전체 정보를 분석, 유전체 선발을 위한 9,538두의 참조집단을 구축했다.

산자수 기록이 없는 후보돈을 기존 방법에 의해 선발했을 경우 정확도는 약 8%에 그쳤다. 그러나 유전체선발을 할 경우 약 22%로 정확도가 2.7배 증가했고, 이 종돈을 이용할 경우 연간 유전적 개량률은 0.13두로 기존 0.05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6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생존자돈수는 9.9두에서 10.5두로 0.6두 성적이 향상되는 것에 그쳐 효율적인 개량 기술의 적용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유전체 선발 기술의 도입은 개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인 종돈회사인 덴마크 덴브래드, 네덜란드 톱픽스, 미국의 PIC 등은 이미 유전체 선발 기술을 통해 종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선발 기술의 실용화가 매우 시급한 현실이었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은 "향후 3년간 15억을 더 투입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농장 간 유전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유전체선발을 농장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참조집단의 개체수를 늘려 선발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연 자선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